

MOVIE 〈웰컴 투 동막골〉에 나타난 판타지의 힘

박정호 |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지난 8월 한국 극장가를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로 녹여낸 〈웰컴 투 동막골〉은 우리를 옥죄어온 이데올로기란 질곡에서 흔쾌히 일어서려는 충무로의 본격적인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남북의 대립되는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충돌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부분을 담아내며 남북 관계가 진전한만큼 이를 그려내는 영화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 : A State of Mind〉와 〈천리마 축구단 : The Game of Their Lives〉을 연출한 영국인 감독 대니얼 고든이 광복 60년을 맞은 8월 15일 방한했었다. 집단체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여중생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꼽히는 북한에서 평범한 주민들의 내밀한 일상을 담아낸 드문 작품이다. 지난해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돼 화제를 모았었다. 고든 감독은 방한 인터뷰에서 “평양이라는 특권적인 도시에 살지만, 그 중에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의 다음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가 〈어떤 나라〉를 찍었던 때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북한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시기였다. 감독은 “미국이 공격하면 6·25때 그랬듯이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들 하더군요. 근데 자꾸 거듭해서 물어보니, 누가 전쟁을 원하겠느냐고, 우리도 평화를 원하지만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체제 내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북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또 그는 1960년대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탈영해 월북한 미군병사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세 번째 작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미 대강의 촬영을 마쳤지만 추가 조사차 오는 10월 북한을 방문하는 길에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관광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6자회담이다. 남북장관급회담이다. 국제정세는 긴박한 듯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은 우리에게 ‘금단의 지역’이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개성은 물론 백두산 관광도 코앞에 다가왔으나 일반인에게 북한은 아직도 경계의 땅이다. 분단 후 고착된 양측의 이념, 일상의 대립이 우리의 의식, 나아가 무의식을 지배해 북한에 대한 우리

의 상상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든 감독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일면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영국인마저 자유롭게 들어가 영화를 찍는(물론 감독 자신의 개인적 특수성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그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연성화 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도 개입했을 것이다) 북한에 아직 우리 영화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원론적 차원에서 고든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누가 전쟁을 원했겠느냐”는 북한 주민의 ‘용감하면서도, 위험한’ 전언이 꺾기에 맴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하다. 광복 60주년 기념식마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따로 열렸던 것이 200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곳에 북한 상황마저 변수로 계산하면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돌려야 겨우 경우의 수가 나오는 복잡다단한 방정식이 나올 것이다.

인간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킨 <웰컴 투 동막골>

<어떤 나라>를 보면서 8월 한국 극장가를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로 녹여낸 <웰컴 투 동막골>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제작 배경도, 과정도, 성격도 판이한 두 영화지만 분단과 평화라는 대명제 앞에선 일면 상통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웰컴 투 동막골>은 폭발적인 흥행이란 사회적 이슈 외에도 한국 영화사에 쉽게 잊혀지지 않을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그에 따른 충돌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게 분명한 까닭이다.

대중의 눈높이를 겨냥하고, 또 대중의 취향을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건강부회일 수 있다. 그러나 <웰컴 투 동막골>의 성과는 흥행을 노린 상업영화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오히려 폭발력이 컸던만큼 접

김해야 할 측면도 많은 작품으로 대접하는 게 보다 올바른, 그리고 정당한 접근일 것이다.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웰컴 투 동막골>의 신선함, 그리고 도발성은 남한군과 북한군이 모두 상대를 괴뢰군이라고 부르는 대목에 있다. 물론 영화는 6·25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이 발발한 것조차 모르는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 남한군과 북한군, 그리고 미군(연합군)이 전쟁이란 폭력적 장치를 거부하고 인간이란 휴머니즘으로 돌아가는 따뜻한 모습을 집중 부각하고 있지만 그전에 남북한 군인 모두 상대를 ‘괴뢰’로 규정하는 부분은 제법 충격적이다. 사실 제도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남한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괴뢰군’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괴뢰군=북한군’의 등식이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었다. <웰컴 투 동막골>의 전복성은 후반부 전투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평자에 따라 <웰컴 투 동막골>의 후반부는 매우 치명적인 부분으로 거론된다. 80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한 지상을 시커멓게 가리는 미군의 폭격장면이 영화에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필자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제법 치밀하게 진행되던 영화가 갑자기 느슨해지고, 또 “저 영화 언제 끝나는 거야”하는 지루한 느낌마저 주기도 한다. 그러나 <웰컴 투 동막골>의 전복성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극대화된다. 각기 다른 사정으로 본대에서 이탈한 남한군과 북한군이 동막골이란 이상향에서 인간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 나름의 ‘연합군’을 구성해 이른바 미군을 주축으로 한 (공식)연합군 폭격기에 중과부적의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면은 분명 기존 한국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생경한 장면이며 연합군이란 고정관념을 단숨에 뒤집는다.

그렇다고 <웰컴 투 동막골>이 정치적·이념적 입장



박광현 감독의 <웰컴 투 동막골> 포스터, 2005

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다. 영화는 오히려 정치·역사를 무력화시킨다. 인간·사랑·우애·평화·사랑·형제·동포·자연 등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저 밑바닥으로부터 끌어올린 순진한 영화에 가깝다. 때론 그 무모하고도 과격한 정치적 순진함이 위험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웰컴 투 동막골>의 과위는 판타지다. 단순히 머리 속에 그린 공상이나 허상이 아닌 우리의 고단한 역사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역사적 판타지라는 사실이 큰 호응을 얻었다. 분단·통일·역사·민족이란 거창한 담론에서 벗어나, 즉 지난 50여 년 분단 한국을 강하게 짓눌렀던 이데올로기의 부담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사람이란 '생기초'로 복귀한 최초의 영화라고 정의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념이란 잣대로 판단했을 때 충무로에 본격 '탈민족적' '포스트모던한' 대중영화가 탄생한 셈이다. 영화 평론가 김의찬 씨는 "기억 한구석에서 숨어 지내던 아스라한 꿈과 순수함을 불러내는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역사의 강박에서 자유로운 유토피아를 세운, 매우 예외적인 업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었다. <웰컴 투 동막골>의 환상성은 영화 전체를 장식하는 나비 이미지로 대변된다. 나비들은 심지어 미군의 무차별한 폭격을 가로막는 장치로도 사용된다. 동막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훑힐 나비는 동양고전 『장자』의 꿈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선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유토피아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연애의 목적>에 이어 <웰컴 투 동막골>로 2005년이 발견한 배우로 명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신 나간 소녀' 여일 역의 강혜정의 의미하는 바도 만만찮다.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미친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 여일은 겉으론 정상인 척 하면서도 속으론 비정상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보고 가라지로 착각하며 즐거워하는 그는 바로 전쟁과 이념이란 허울에 짓눌려 정작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국 현대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캐릭터다. <댄서의 순정>에 노출됐던 문근영의 순수성은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정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영화는 짧게나마 정치의 요체도 제시한다. 북한군 장교 리수화(정재영)가 동막골 촌장에게 '100% 청정마을'을 이끌어가는 비결을 묻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참고로 해당 대사를 인용한다.

질문: "기리니까지... 거 뭐이가... 고향 한번 지루지 않구...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대답: "뭘 마이 떼게이지 마....."

영화 속 환상이 비록 눈앞의 모순을 직접 해결하는 방안은 내놓지 못했더라도 영화의 기본 모토는 어떤 정치가든, 학자든 도저히 망각할 수 없는 명제를 제시했다고 본다. 현실을 뛰어넘는 판타지, 나아가 예술의 힘, 제2, 제3의 <웰컴 투 동막골>이 계속 나오길 바라는 이유다.

맹자가 설파했던 '항산' (恒産)과 '항심' (恒心)이 바로 떠오른다. 쉽게 말해 "배가 불러야 마음도 편하다"는 뜻이다. 일자무식 촌노의 통치 비결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심과 탐욕 없이 오직 백성의 '배', 나아가 나라살림을 우선하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의 변할 수 없는 철칙일 것이다. 영화는 이런 불변의 법칙을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촌노의 입을 빌려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한 칭찬이 과한 듯하다. 하지만 영화는 분명 반가웠다. 대중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는 완성도 높은 구성과 함께 이 시대 한국인의 고민을 능숙하게 빚어냈다. 분단이란, 나아가 남북화해란 화두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러면서도 가슴 속 깊이 박히게 꾸며낸 연출력이 돋보인다.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와 특징

사실 분단은 한국영화의 최대 흥행 코드였다. 한국영화의 자신감을 불러 넣어준 <쉬리>(1998년)나 남북 병사의 인간적 교류를 다룬 <공동경비구역 JSA>(2000년), 또 영화 최초로 편당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실미도>(2004년), 한국전쟁이 빚어낸 형제의 비극을 그린 <태극기 휘날리며>(2004년)는 사실 모두 분단의 산물이었다. 또 최근 비교적 좋은 반응을 끌어낸 통일사극 <간 큰 가족>(2005년)도 남북분단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하지만 분단을 보는 영화의 눈은 시기적으로 다르다. <쉬리>는 반공·멸공류의 고답적 방식을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이란 소재를 과감하게 차용했으나 북한을 '잠재적 테러집단'으로 보는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판문점 부근의 남북 병사들이 북한 초소에서 서로 형과 아우로 만나며 종전의 한국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동포애를 부각했으나 여전

히 남과 북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엄연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과간첩단이라는 누구나 알았던, 그러나 당국은 숨기고 싶어했던 조직을 스크린에 공개한 <실미도>와 전쟁의 비극을 스펙터클한 화면에 옮겨놓은 <태극기 휘날리며>도 남과 북의 대립구도를 그대로 차용했다.

올해 분단을 다룬 영화는 어깨의 힘을 뺐다는 점이 새롭다. 실향민 아버지를 위해 자식들이 통일된 한국을 위해 이리저리 뛰는 코미디 <간 큰가족>이 그 포문을 열었다면 수류탄으로 터진 옥수수를 비처럼 쏟아지는 팝콘으로 변화시킨 <웰컴 투 동막골>은 우리를 옥죄어온 이데올로기란 질곡에서 흔쾌히 일어서려는 충무로의 본격적인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연말 개봉할 광경택 감독의 <태풍>에서 이렇게 달라진 역사의식이 어떻게 형상화될지도 제법 궁금해진다. 남북 관계가 진전한 만큼 이를 그려내는 영화 또한 조금씩 발전해온 모양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영화는 생래적으로 판타지다. 아무리 현실에 기초해도 당연 픽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웰컴 투 동막골>은 그런 픽션의 영역을 확대해 오히려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즐겁게 일탈하게 하는 지렛대를 만들어줬다. 영화 속 환상이 비록 눈앞의 모순을 직접 해결하는 방안은 내놓지 못했더라도 영화의 기본 모토는 어떤 정치가든, 학자든 도저히 망각할 수 없는 명제를 제시했다고 본다. 현실을 뛰어넘는 판타지, 나아가 예술의 힘, 제2, 제3의 <웰컴 투 동막골>이 계속 나오길 바라는 이유다. <어떤 나라>의 고든 감독처럼 우리 영화인이 북한에 가고, 또 북한 사람을 별다른 간섭 없이 만나 영화를 완성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